

# 수도정책 상생의 논리로 풀어야

## 주봉현 수도정책과장의 고뇌 수량관리에서 인간과 함께로 전환



**상** 하수도정책이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얼핏보면 매년 빈번히 이뤄지는 끊임없는 역사성과 물길 가는 데로 예산을 설정하고 집행한다지만 2001년 국제적 흐름과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서 전개되는 상하수 정책은 커다란 변화와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상류의 폭포를 지나 휘돌아 가며 여울목에서 저 망망한 바다를 향해, 종착점을 향해 물소리를 내듯 휘돌아 가며 새로운 제안과 방향을 설정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 지방행정을 맡아 왔고 한때 하수과장을 지내기도 한 기초적인 물의 철학을 지니면서 환경기술과에 근무시에는 환경부가 기업체와 손을 잡고 한배를 타자는 전략을 세워 많은 기업인들로부터 인정받는 실무행정가로 이미 낙점을 받은 그였다.

그 경험과 유유한 배짱 그리고 미래를 예견하는 식견이 상하수 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과연 그가 그려놓은 전망대는 어떻게 등불을 밝히고 있는가.

조심스레 쾌를 풀어보자.

그 첫 번째 출항의 기적소리는 환경행정 혁신프로그램 추진으로 에코-디지털화 실현관련 상하수도 정보화 사업이다.

일명 e-상하수도사업은 마치 지난 가뭄의 척박한 땅위에서 웅덩이를 찾는 듯한 극한 상황이었다. 상하수도의 정보화는 당연히 따라야 할 예산과 사전 준비된 인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출범은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한 정보화 산업이 아니냐며 업무의 혼선만 초래한다는 비판만 난무했다.

하지만 주과장은 현행 시스템으로 안주하는 것은 세월만 낚는 격이며 결국 누군가 언젠가는 해야 하는 가야할 길이라는 대명제 아래 시대적 흐름에 맞는 굴곡을 헤치며 직접 정보와 자료를 입수하고 주변인물에게 자신감 있는 어조로 설득 이뤄내게 했다.

이 같은 사업방향은 결국 정보통신부에서 좋은 평점을 얻었고 결

국 최근 일고 있는 바이러스 문제 등 시시각각으로 부딪치는 상하수도 행정에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상충 이 사업이 결실을 맺게된다.

또 하나의 지략적인 사업은 상하수도협회의 출현이다.

사실 우리나라 수많은 협회와 조합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최근에는 조합에 대한 해체 및 단체주의계약의 해체로 많은 집단적 모임이 결빙되어가는 시점에서 대단위의 상하수도협회의 탄생은 행정가뿐 아니라 국회에서조차 의혹과 빛나간 눈으로 비판의 저울 위에 올려져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하수도 운영의 주체가 지방자치체이고 이들의 취약한 점을 개별 상황에서 숙제를 풀기보다 협회를 활성화하여 많은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에게 안정적인 기술과 인력지원 및 정보를 공유하게 한다는 취지는 이미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가의 운영체제에서 확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결국 반대와 쌍심지를 켜들던 국회에서 오히려 독려하고 이를 체계있게 정리 정돈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하수도협회의 발전적 탄생을 만들게 했다. 사실 협회의 탄생은 올 한해도 요원하고 국회에서 상정조차 하지 못하리라는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었다. 지하수 문제에서는 그 동안 방치되었던 귀중한 자원에 대해 수질국 업무에서 오랜 논의 끝에 상하수국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그것은 지하수관리가 상·하수도 와 마찬가지로 친환경적 물관리로 전환해야 하며 보전과 개발을 통한 이용가치의 확대를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명제에서였다.

최근에는 친근한 물관리 전국민의 의식을 교육과 홍보를 통한 스스로 체득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물질약 컴퓨터 게임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환경부의 하는 일이 매우 다양하고 국민속에 파고들고 있다는 인지를 높여주고 있다.

즉 그 동안 치수관리와 수량관리, 공급문제에 매여 있었던 정책에서 탈피하여 국민건강과 직결하는 국민의 생명과 함께 하는 상생의 원리로 적극 방향전환을 했다는 점에서 상하수국의 새로운 미래상은 참신한 회오리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취재-김동환 이사) **水道**